



# 강의를 잘 하는 강사와 잘 못하는 강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 사내강사양성 심화과정을 마치고 —

글 : 충북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차장 인숙교

첫 번째 질문을 듣는 순간 강의를 경험해 본 우리로서는 깊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강의를 잘 하는 강사와 잘 못하는 강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저 의무감과 시간에 맞춰 교육을 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이 난무하며 근로자의 지식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교안이 적절했는가? 근로자의 이해도는 어땠을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고 사내강사과정에 들어갔다.

사내강사과정은 Heat-Up, Energy-Up, Skill-Up, Power-Up으로 나뉘어 실질적인 강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이었다.

Heat-Up을 통해서 강의의 동기와 목적, 교육생의 기대 등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이해했다. 그 후 실제로 발표 실습을 해봄으로써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강의라는 것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Energy-Up에서는 유능한 강사의 특성을 파악해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확인하였다.

Skill-Up은 스킬 있는 강사를 위한 본격적인 과정이었다. 도입(친교스킬), 전개(정보전달스킬), 종결(확인스킬)을 통해 전문적인 강사로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다.

Power-Up에서는 실제 강사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교안을 작성해보고 작성된 교육으로 당당히 앞에 서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우리는 앞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교육생들을 집중시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되어 있었다. 강의 후에는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본인이 잘하고 있는 점, 개선할 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어 도움이 되고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모두들 교육 첫날 Heat-Up에서의 강의실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해 있는 모습이었다. 강한 자신감으로 긴장하지 않았고 교육생들과 부드러운 시선을 맞추며 강의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었다.

보건관리팀에 근무하면서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만나고 교육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사내강사 교육과정으로 협회 내에서의 직원들을 위한 강사과정이었지만, 외부교육을 위한 강사과정 교육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며, 강의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내용으로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실한 시간이었다.

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나아가 역량을 강화하여 유능한 강사가 되기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 각자의 위치와 자리로 돌아가 현장감 있는 교육, 다양한 강의스킬과 내용, 자신감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강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진정으로 인정받는 강사가 되어 있을 것이라 믿는다. 🙌

